

현장시선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도민의 자기결정권 포기하라는 윤석열 정부

제2공항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다. 국토부가 급작스럽게 오영훈 도정 출범 하루 전에 환경부가 반력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점도 묘한 것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새 도정에 대한 압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력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도민이 결정한 제2공항 반대대안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차단하는데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2공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력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셀프 용역을 진행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달 만에 반력 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치 결론을 이미 내리고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였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만 4년동안 본안을 포함한 세 차례나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최종 반력했다. 사실상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작 6개월간의 셀프 용역으로 만 4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국토부는 어떤 사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력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갑자기 요술을 부려 제2공항의 환경문제가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셀프 용역결과는 사실상 기만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셀프 용역결과를 명분 삼아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요구는 오영훈도정을 중앙권력에 굴종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영훈도정은 도민의 자

기결정권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제2공항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명확히 밝히고 국토부의 셀프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의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고 분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 환경파괴와 오염을 직접적인 생활환경 악화와 삶의 질의 추락으로 이미 질리도록 경험해왔다. 그래서 도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문제 해결이다. 이런 점을 오영훈 도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부디 올해 제2공항이 철회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이 고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사설

급격한 금리 인상, 침체경기 더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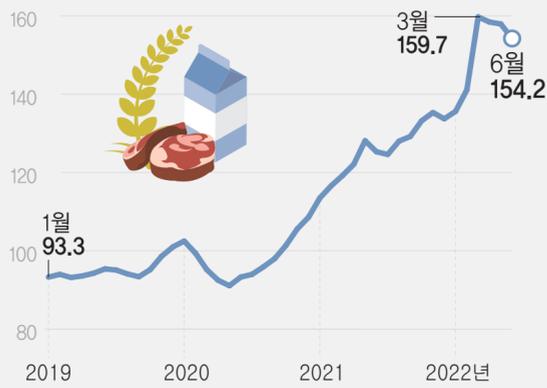
예상대로 빅 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았다.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2%대로 들어서면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2.0%) 이후 7년 9개월만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했다. 지난해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p 올린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10개월새 0.25%p 다섯차례, 0.50%p 한차례 이뤄졌다. 세차례 연속(4·5·7월) 기준

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격이나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크게 올라 우려스럽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7.4%나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빅 스텝으로 인상되면서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더욱 그렇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침체된 경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픽 뉴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열린마당

환경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이 승 규
제주한라대 응급구조학과 2학년

119구급대원을 꿈꾸던 내게 환경119안전센터 실습은 유익했다. 책에서만 보던 장비를 직접 만져보고, 구급약품과 약품의 쓰임에 관한 설명을 듣는 모듬게 신기하고 특별했다. 출동 지령이 울리고, 대원들과 처음 구급차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이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심하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환자를 능숙하게 처치하는 구급대원의 모습을 뵈고 지켜봤다.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서 위치 도착하기까지, 구급대원은 쉬지 않고 보호자와 유선 연락을 했다.

환자 정보에 따라 처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환자는 의식이 있었다. 불발뒤에 쉬지 않고 일을 하다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이다. 열경이는 차에서 의료지도를 하고, 포도당 정맥주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엔 구급차 운전은 하는 대원도 한몫했다. 퇴근길 정체구간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는 차들을 보면서 마음이 훈훈해졌다. 사람들의 작은 선의가 모일 때, 골든아워도 사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 소방관에 대한 꿈을 더욱 굳혔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고귀한 일이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신 환경119센터 모든 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순항 2단계 사업, '우려' 해소가 먼저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여러 우려에 직면했다. 화순항 개발이 수산자원과 해양영토 보호 명분에도 금모래 해수욕장 존폐, 수질오염 확산, 진입로 확보 등 적잖은 우려를 안고 있다. 바다개발은 지역개발보다 더 환경·주민 입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3년 외곽시설 축조, 해경전용 부두, 선박 물양장 신설 등을 위해 추진돼 왔다. 제주어업관리소가 2014년 개소돼 사업규모도 커졌다. 사업규모가 접안시설 160m, 외곽시설 호안 198m, 준설 24만9033㎥ 등에 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었고, 관련 절차도 진행중이다. 화순항 개발사업 절차서 한층 커진 우려가 문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3일 환경영

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지난 11대 도의회에 이어 다시 심사보류시켰다. 사업계획수 많은 준설량 탓에 금모래해수욕장 모래유실, 부유물질 확산에 의한 수질오염 확산, 공사 진입로 개설·토지보상 등에 여러 우려들이 제기된 탓이다. 주민간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선 진입 도로 보상에 안된 터라 부정적인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화순항 사업이 여러 우려를 안고 강행돼선 곤란하다. 사업이 장기화 '표류'로 당초 기대한 개발이익을 못낼 우려도 있지만 현재 우려를 해소 않은 채 추진 시 잃을 유무형의 불이익도 큰 우려다. 제주의 과거 개발사태들은 주민과 환경입장서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수 없이 남겼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제주의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채출 공고)
주식회사 성진전력 (이하 "갑"이라한다)와 성광전력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한다)는 2022년 7월 7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역)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제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자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감귤 신제품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품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랑향, 탐맛1호, 망유자, 아파나스, 레몬, 방자1~2년생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로도로변)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권정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골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투) 1, 4년생 · 궁천 변이(오하라배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명 : 망 김수철(1964. 4. 20생)
취우주소 : 제주시 한림읍 용포7길 8 (용포리)
상기자는 2013년 1월 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7월 6일 제주지방법원 2022-단102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원상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서광로18길 14, 2층(삼도일동)
2022년 7월 1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로라, 김희연

방수 단열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리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